

독-한 두말사전의 미시구조 조직

김 경(하이델베르크 대학)

1. 들어가는 말

지난 약 30년 간 독일어 사전학 Wörterbuchforschung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야의 연구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일어 한말사전학의 학문적 성과와는 달리 독일어 두말사전학은 최근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독-한 두말사전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사, 유형분류, 사전기능, 이용 상황, 거시-, 미시구조의 구성성분과 그 조직 등 소위 현대 사전학의 거의 모든 연구영역이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어 두말 사전학의 학문적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등한시 되었던 독-한 사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두말사전의 기본유형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사전의 구성성분들과 그 구조에 대해 논의된다. 거시구조적 측면에서는 올림말의 선택과 배열에 관해, 미시구조적 측면에서는 개별적 구성성분들 즉, 번역대응어, 변별소, 용례와 그 구성성분들의 조직에 관해 다룬다. 아래의 세 가지 수동적 독-한 일반언어 사전이 연구대상으로서 검토된다. 이 사전들은 단방향 monodirektional이고, 한국어 모국어화자를 이용자로 고려하고 있다.

1. 엡센스 독한사전. 허형근(편). 서울, 민중서림, 1983. (이하 EDK).
2. 현대 독한사전. 지명렬·지 정(편). 서울, 교학사, 1996. (이하 HDK).
3. 모델 독한사전. 한국독어독문학회(편). 서울, 삼화출판사, 1995. (이하 MDK).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위 사전의 거시-, 미시구조 분석을 광범위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소수의 사전항목에 의거해 특히, 항목 Arbeit를 중심으로 간략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2. 두말 사전의 기본유형

두말사전학에서 능동-수동-원칙 Aktiv-Passiv-Prinzip은 매우 중요하다. 사전의 거시-, 미시 구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 원칙의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잠재적 이용자 집단과 그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능동사전은 외국어 텍스트의 생산에 쓰이는 사전으로, 수동사전은 외국어 텍스트의 수용에 쓰이는 사전으로 이해한다 (Kromann et al. 1984, 185 f.; Duda et al. 1986, 11 ff.). 이 분류에서 보듯이, 다음의 대조쌍은 - (1) 모국어와 외국어, (2) 모국어로의 또는 외국어로의 번역, (3) 수용과 생산 - 사전유형에 대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 분류 이외에, Hausmann (1977, 56)은 “외국어방향 번역사전 *Hinübersetzungswörterbücher*”과 “모국어방향 번역사전 *Herübersetzungswörterbücher*”, Manley et al. (1988, 283 f.)는 “부호화 사전 *encoding dictionary*”과 “해독 사전 *decoding dictionary*”이란 분류 명칭을 선호한다. 독일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번역방향과 이용자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본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유형	번역방향	이용자	사전기능
1	독일어-한국어	한국인 이용자	수동(passiv)
2	한국어-독일어	독일인 이용자	
3	독일어-한국어	독일인 이용자	능동(aktiv)
4	한국어-독일어	한국인 이용자	

<표1: 두말사전의 기본유형>

(표1)에서, 각 언어쌍 마다 네 종류의 사전, 즉 두 종류의 능동사전과 두 종류의 수동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Hausmann (1977, 144 ff.) 등에 의해 능동-수동-원칙의 확장이 시도되었다.

수동사전: 모국어 이해 (Text→∅) 및 모국어방향 번역 (Text→Text);

능동사전: 외국어방향 번역 (Text→Text) 및 외국어 생산 (∅→Text).

그러나 이 확장의 결과는 한 언어쌍당 여덟 권의 사전제작이라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현단계 연구상황에서는 두말사전의 네 가지 기본유형이 사전학의 이론과 실제에 가장 부합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위 기본 유형에 따르면 세 가지 독-한 사전은 유형1에 해당하는 사전들이다.

3.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전통적인 유형의 사전은 두 개의 층위 즉,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올림말 Lemma은 일정한 순서체계(예. 알파벳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배열된 올림말의 집합을 거시구조 Makrostruktur라고 한다. 흔히 우리가 사전항목 Wörterbuchartikel이라고 부르는 올림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시구조 Mikrostruktur라고 한다.

거 시 구 조	올림말 x	올림말 x에 관한 정보	미시구조
	올림말 y	올림말 y에 관한 정보	미시구조
	올림말 z	올림말 z에 관한 정보	미시구조

(도해1) 거시구조와 미시구조¹⁾

두말사전의 거시구조에서는 올림말의 선택과 배열이, 미시구조에서는 구성성분들의 즉, 대응어, 변별정보, 용례 등의 항목 조직이 주된 연구영역이다.

3.1. 올림말 선택

한말사전 뿐 아니라 두말사전도 말뭉치 Korpus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두

1) 여기서는 거시-, 미시구조에 대해 간략한 윤곽만을 다룬다. 사전의 거시-, 미시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상세한 정보는 Wiegand 1989a/ 1989b를 참고할 것.

말사전의 편찬을 위한 말뭉치로 유용한 기초자료는 (1) 한 언어쌍의 한말 일반(특수)사전 (예. 한국어와 독일어 한말 일반(특수)사전), (2) 한 언어쌍의 두말 일반(특수)사전 (예. 독-한/ 한-독 두말 일반(특수)사전), (3) 한 언어쌍의 빈도순 어휘목록, (4) 신어 Neologismen 목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전편찬자가 (5) 제 3언어의 두말 일반(특수)사전 (예. 영-한/ 영-독 두말사전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한말 또는 두말사전 이외에도 어휘의 빈도순 목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목록은 어휘검사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올림말 선택 뿐만 아니라 대응어 선택에도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이 목록의 도움으로 고빈도 올림말을 저빈도 대응어와 연결시키는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Baunebjerg Hansen (1988, 198)에 따르면 한말사전에는 두말사전 편찬작업에 유용한 자료²⁾가 많으므로, 훌륭한 한말사전은 부분적으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말사전의 단순한 번역은 유용한 두말사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출발어와 표적어의 다의어구조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림말 선택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전의 규모와 사전의 목적이다. 즉, 이 두 요소에 의해 올림말 정보의 양과 제공방법이 달라진다. 여기서 경제성의 원칙이 언급되어야 한다. 경제성이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량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면절약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명한 조어와 국제어 등은 생략될 수 있다.

3.2. 올림말 배열

올림말 배열과 관련해 두말사전의 거시구조 유형은 한말사전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직 알파벳 glattalphabetisch, (2) 곡선 알파벳 nischenalphabetisch, (3) 무리 알파벳 nestalphabetisch (비교. Wiegand 1989a, 380 ff.; Hausmann/Werner 1991, 2746 ff.).

2) 예를 들어 거시구조상으로 올림말 선택에, 미시구조상으로는 대응어, 용례, 관용어법 등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Arbeit
arbeiten
Arbeiter
Arbeiterabteilung

Arbeit	arbeiten
	arbei=
tend	Ar=
beiter	
Arbeiterabteilung	~ari=
stokratie (...)	

(도해2) BW의 수직알파벳 배열

(도해3) EDK의 곡선알파벳 배열

Arbeit	
arbeiten	
arbeitend	
Arbeiter	
Arbeiter-abteilung	
~angebot	~ari
stokratie (...)	

Arbeit
~erleichternd
~erschwe-
rend (...)
arbeiten
Arbeiter

(도해4) HDK의 곡선알파벳 배열

(도해5) MDK의 무리알파벳 배열

수직 알파벳 사전은 (도해2)에서 처럼 올림말을 엄밀한 알파벳 순서에 의해 수직선 모양으로 배열한다. 올림말 찾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면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석대상인 세 가지 독-한 사전에는 이 방식을 채용한 사전이 없었다. 여섯 권 짜리 독일어 한말 대사전 BW에서 이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도해3), (도해4)는 곡선 알파벳 배열방식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올림말을 수직선 모양으로만 배열시키지 않고, 중간중간에 연관이 있는 -의미 또는 철자 측면에서- 하위올림말 Sublemma를 묶어서 배열한다. 올림말들의 연속선이 구불구불한 곡선형이다. 이때 알파벳 순서는 엄격하게 유지된다. EDK, HDK 두 사전에서 이 배열방식을 볼 수 있다.

무리 알파벳 사전도 연관이 있는 올림말 무리를 네모 모양의 구획에 묶는다. 올림말들은 이 구획 안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 있지만, 구획의 앞, 뒤에 놓인 올림말

과는 알파벳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도해5)처럼 *arbeiterleichternd*가 다음 구획의 *arbeiten*보다 앞에 놓인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거시구조는 지면 경제성과 학습가능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점은 올림말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과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이 배열방식은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의미적 분석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MDK 사전에서 채용한 방식이다.

4. 미시구조의 구성성분과 그 조직

다의어 구조와 다중어휘 Mehr-Wort-Einheiten 정보가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일반 두말사전의 미시구조를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통합 미시구조 *die integrierte Mikrostruktur*, (2) 비통합 미시구조 *die nichtintegrierte Mikrostruktur*, (3) 부분통합 미시구조 *die partiell integrierte Mikrostruktur* (Wiegand 1989b, 482 ff.; Hausmann/Werner 1991, 2748 ff.).

통합 미시구조에서는 용례정보가 각각의 해당 의미군 (더 정확하게는 대응어군)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4.2.절의 (보기3)에서는 첫 번째 대응어 정보 “1. a) (말은) 일, 작업, 연구.” 밑에 “an[bei] der A. sein”, 네 번째 대응어 정보 “4. a) 노작, (제)작품, 제조품, (연구) 논문.” 밑에는 “junge Künstler stellten ihre -en aus” 등의 용례정보가 해당 의미군에 통합적으로 제시된다. (보기1)도 마찬가지로 통합 미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반면에 비통합 미시구조에서는 용례정보와 다의어 구조가 서로 분리 배치된다. 항목머리 *Artikelkopf*에는 대응어(들)만 놓고, 그 다음에 용례정보가 뒤따라 나온다. (보기1)을 비통합 미시구조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배열 형태를 갖게 된다.

Arbeit [...] ① (육체적·정신적) 노동; 작업; 연구 ② 노고, 수고, 애쓰기 ③ (노동의 대상·결과:) 일, 과업; 노작, 제작품, 저작, 연구의 결과 ④ 솜씨, 만듦새 ⑤ (맥주 등의) 발효 ⑥ [籾] 노동자(총원) || ❶ <형용사> nicht die *halbe* ~ haben ❷ <동사> ~ *bekommen*, die ~ *einstellen* [od *niederlegen*] ❸ <전치사> *an* [od *bei*] der ~ sein, an die ~ gehen, sich an die ~ machen, *auf* ~ gehen, *in* ~ sein, etw. in ~ haben, in ~ nehmen, *ohne* ~ sein ❹ <기타> *keine* ~ haben.

(도해6) EDK의 항목 Arbeit의 미시구조 변환³⁾

3) (도해6)은 비통합 미시구조의 전형적인 예인 DCW의 배열원칙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대응어 정보와 용례정보는 임의의 기호(∥)에 의해 분리되어 두 정보집합은 비통합적이다. 이때 배열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정렬원칙은 다음과 같다: 문법범주(예. 품사), 알파벳, 의미. 예를 들면, DCW에서는 용례정보가 우선 품사별로 정렬되고, 각 정렬단위는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 이 경우 범주적-알파벳 배열 *kategoriell- alphabetische Anordnung*이라고 한다. 부분통합 미시구조는 말 그대로 통합형과 비통합형의 절충형식이다. 다중어휘단위의 일부는 다의어구조 내부에, 그러나 다른 일부는 별도의 자리에 놓인다. (보기2)을 예로 들면, 첫 번째 대응어 정보 아래에서도 *körperliche ~, geistige ~* 등의 용례정보가 제시되고, 관용구 구획 아래에서도 (*bei jm.*) *in Arbeit stehen* 등의 용례정보가 제시된다. 이때 이 별도의 구획은 흔히 관용구 등의 제목으로 시작된다. 이 부분통합 미시구조의 일종으로 반통합 미시구조 *die semiintegrierte Mikrostruktur*도 있다. 이 구조는 통합소관련 구획과 항목머리가 분리되어 있지만 두 부분이 완전히 일치될 수 있다고 해서 반통합형으로 불린다.

HDK의 항목구조는 부분통합 미시구조를 보인다. 각 대응어 정보는 번호순대로 줄을 갈아쓰므로 일목요연하다. 관용구 등의 정보가 한 구획에 따로 묶여 별도 처리되어 미시구조에 쏠리는 부담을 경감시킨다. 하지만 지면 경제성부문에서는 단점을 보인다. EDK는 통합 미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용구가 항목 내에서 감추어진 채 흩어져 배열되어 있다. 이용자가 특정 다중어휘단위를 포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도 어렵다. 글꼴 디자인 *Typographie*도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이용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준다. MDK도 역시 통합 미시구조 방법을 쓰고 있으나, 일목요연함에서 이용자 편의성 *Benutzerfreundlichkeit*이 한층 채고되었다. 다중어휘 정보(관용구 정보)가 개별 항목의 끝에 배치되고 글꼴 디자인적 방법으로 다른 용례정보와 차별시켰다. 물론 MDK는 대응어와 용례정보가 똑같은 크기의 활자로 설정되어서 앞 번호 개별항목 끝에 놓인 관용구정보 무리와 뒷 번호 개별항목 앞의 대응어 정보가 나란히 제시되는 경우, 대응어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Hausmann (1991, 2749)에 따르면 비통합 미시구조가 한말사전 보다 두말사전에서 훨씬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한다. 특히 이 구조는 이용자의 -모국어 방향이나 외국어 방향이나 번역상황에서 빠른 대응어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인다. 이용자는 대응어 구획에서 가능한 대응어를 먼저 일별할 수 있고, 용례정보, 통합

소 정보, 관용구 정보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다중어휘정보 기획에서 찾을 수 있다. 분석대상인 세 가지 수동적 독-한 사전 중에 비통합 미시구조를 채용한 사전은 없다. 앞으로 독-한 두말사전에서 이 구조의 채택을 고려해 볼 만하다.

두말사전에서 미시구조의 구성성분으로는 대응어정보, 대응어 변별정보, 용례정보가 있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 1	위치 2	위치 3		위치 4
올림말	대응어	대응어 변별정보	방주	용례정보
			표지	
			기술언어적 설명	

<표 2: 미시구조 구성성분의 수평적 배열>

위치 번호는 각 구성성분의 수평적 연속을 보여준다. 올림말과 대응어 간의 불일치성이 빈번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대응어는 대응어 변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추가적인 변별정보는 대응어의 단일의미화 Monosemierung에 기여하며 따라서 이 사용자가 적합한 대응어를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변별정보에는 크게 (1) 방주 Glosse, (2) 표지 Markierung, (3) 기술언어적 설명 metasprachliche Erläuterung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개별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도 변별기능을 갖고 있다. 용례정보 역시 변별정보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주된 기능은 올림말의 쓰임새를 보여주는 것이다.

4.1. 번역대응어 정보

두말사전은 출발어의 올림말에 표적어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번역대응어 Übersetzungsäquivalente(이하 대응어)를 제공한다. Zgusta (1971, 312)는 표적어에서 대응어를 찾아내는 활동이 두말 사전편찬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대응어는 올림말과의 어휘의미적 일치성의 정도에 따라 완전 대응어 Volläquivalent, 부분 대응어 Teiläquivalent, 영대응어 Nulläquivalent로 분류할 수

있다.⁴⁾ 완전 대응어는 출발어 올림말에 대해 어휘적 의미일치성이 온전히 유지되는 대응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림말과 대응어를 대비했을 때 정보손실이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완전한 언어간 일치는 흔치 않다. 부분 대응어는 어휘적 의미일치성이 부분적으로 있는 대응어인데, 이 유형이 가장 흔한 경우이다 (Duda et al. 1986, 40). Kromann et al. (1984, 190)은 부분 대응어를 일종의 “언어간 상위어 및 하위어 interlinguale Hyperonyme bzw. Hyponyme”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예1) dt. *Bruder* kor. 형, 동생, 오빠

(예1)은 부분 대응어의 예를 보여 준다. 즉, 독일어 올림말 “*Bruder*”가 한국어 대응어 “형”, “동생”, “오빠”에 대해 언어간 상위어의 역할을, 마찬가지로 “형”은 “*Bruder*”에 대해 언어간 하위어의 역할을 한다. 세 독-한 사전에서는 한국어 대응어 “오빠”가 없었다.

영대응어는 출발어 올림말에 해당하는 어휘적 일치가 표적어에 전혀 없는 경우의 대응어이다. 이러한 어휘적 빈틈 *lexikalische Lücke*은 대개 제도, 역사, 정치, 종교, 음식 등 문화특수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 밖에도 정보기술(IT) 같은 신어 *Neologismen*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Duda et al. (1986, 41)는 영대응어와 관련해, “출발어의 환경특수적 현상을 표현하지만, 표적어에는 없는 또는 여타 이유로 어휘화 되지 않은 어휘단위를 실재어 *Realien*”로 정의한다. 일반 올림말과 마찬가지로 실재어를 사전에 등재할 때, 사전 편찬자는 대응어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직접 삽입가능한 번역 대응어 제시, (2) 백과사전적 설명. 직접적인 번역대응어의 제시는 사전학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삽입가능성 원칙 *Prinzip der Einsetzbarkeit*”에도 부합하며, 구체적인 텍스트 번역작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표적어 측면에서 부자연스런 표현을 양산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백과사전적 설명은 적합하지 않은 대응어를 피할 수 있으나, 역시 실제 번역

4) Zgusta(1971, 312 ff.)의 분류는 (1) “absolute equivalent”, (2) “partial equivalent”, (3) “no equivalent”의 세 가지이고, Kromann et al. (1984, 189 ff.)도 이 분류를 수용한다. (1) “vollständige Äquivalente”, (2) “unvollständige Äquivalente”, (3) “die Äquivalentsurrogate”.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응어의 투입에 난점이 있다. (예2)에서 MDK는 백과사전적 설명으로 대응어를 제시한다.

(예2) dt. *Saumagen* kor. 돼지 위 (EDK)

[요리] 비계살, 감자, 양념 따위를 돼지의 위속에 채워넣은 바이에른 식의 소세지 (MDK)

[料] (베이컨·감자 등을 채워 넣고 조리한) 돼지의 위장 (HDK)

EDK는 요리이름인 *Saumagen*을 사용분야 표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MDK, HDK는 표지 제시와 아울러 재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대응어 선택에 있어서 HDK의 “돼지의 위장” 보다는 MDK의 “바이에른 식의 소세지”가 적절하다. 왜냐하면 후자가 음식이름을 연상시키고, 삽입가능성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MDK에서는 “비계살, 감자, 양념 따위를 돼지의 위속에 채워넣은” 부분을 괄호로 묶어 방주처리를 하고, 대응어도 바이에른식이라고 잘못 쓴 부분을 팔츠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실재물 기술에서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직접 삽입가능한 번역 대응어를 제시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요리] 자우마겐 (비계살, 감자, 양념 따위를 돼지의 위속에 채워넣은 팔츠 식의 소시지”.

4.2. 대응어 변별 정보

위에서 언급한대로 올림말과 대응어가 서로 상이한 다의어 구조를 갖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대응어 자체만으로 올림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전편찬자는 대응어 정보 외에도 추가적으로 올림말과 대응어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수단이 필요하다. 사전 이용자가 가장 적당한 대응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추가적인 정보는 대응어에 보정적인, 변별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를 “변별소 Diskriminator”(Manley et al. 1988, 290)라고 한다.⁵⁾

Hausmann/Werner(1991, 2734 ff.)는 (1) “언어맥락 정보 Kotextangaben”⁶⁾, (2)

“방주”, (3) “표지정보”의 세 유형이 많은 두말 사전에서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충분한 구분이 없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변별소의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식 범주는 (1) 표지, (2) 방주, (3) 기술언어적 설명이다. 변별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 한말사전에서 보다는 두 개 언어를 다루는 두말사전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실제로 두말사전들은 편찬자에 따라, 심지어는 동일한 사전 내에서도 비밀관적인 기술을 보여준다.

표지는 해당 어휘소(올림말, 대응어)의 여러 가지 특징을 표시해 준다. Hausmann(1977, 112)은 8가지 종류로 표지를 세분했다: (1) 통시적 Diachronische, (2) 위상적 Diatopische, (3) 통합적 Diaintegrative, (4) 계층적 Diastratische, (5) 암시의미적 Diakonnotative, (6) 기술적 Diatechnische, (7) 빈도적 Diafrequente, (8) 규범적 표지 Dianormative Markierung. 위 표지들을 단순화하자면 (1) 시간적, (2) 지역적, (3) 사회적, (4) 문체적 표지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⁷⁾

Werner(1991, 2798 f.)는 다수의 두말사전에서 표지정보의 불일치 Inkongruenz가 나타나고, 이는 이용자에게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불일치는 특히 표지 구분의 부정확성 또는 표지 정보의 불분명한 배치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
- 5) 영어권의 술어 “의미 변별 meaning discrimination”이 비교적 통일된 형태로 쓰이는 반면, 독일어권에서는 여러 술어가 경쟁하고 있다. 두말사전에서는 표적어의 의미가 아니라 대응어가 중심이 되므로 여기서는 “대응어 변별 Äquivalentdifferenzierung”이 선호된다. 그 밖의 술어 참고. “대응성 구별 Äquivalenzunterscheidung”(Hausmann 1977, 53), “의미 구분 Bedeutungsdifferenzierung”(Kromann et al. 1984, 192; Baunebjerg Hansen 1990, 15 f.), “대응성 구분 Äquivalenzdifferenzierung”(Hausmann/Werner 1991, 2740).
 - 6) Hausmann/Werner(1991, 2734)는 흔히 쓰는 “용례 Beispiel” 대신 “언어맥락 정보 Kotextangaben”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전자가 무엇보다도 두말사전에서는 부수적인 수준에 머무는 예증적 exemplifizierend 기능의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술어는 대응어 또는 용례의 사용범위 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 논문에서는 “Beispiel”을 사용한다.
 - 7) 두말사전은 아니지만 현대 독일어로 대응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그 기능적 유사성을 보이는 O. Reichmann의 “초기 신고지 독일어사전 Frühneuhochdeutsches Wörterbuch”에서는 시간적, 지역적 그리고 기타 정보를 “정후정보 Symptomwertangabe”라고 포괄하여 올림말의 특징에 관한 입체적 정보를 제시한다(비교. Reichmann 1989, 123 ff.).

(예3) **Arsch=loch** *n.* 향문; du ~loch! 예끼 똥을 싸 놨. <EDK>

(예4) **Arsch-loch** *n.* 향문: Du ~! 예끼 똥같은 놈; 에이 더러운 자식! <HDK>

(예5) **Arschloch**, das ((속어)) 1. 향문. 2. 욕설: dieses A! 이 더러운 놈! <MDK>

(예3), (예4)에서는 “신체부위”와 “사람”을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즉 “신체부위”와 “사람”을 같은 항목에서 뒤섞어 취급했다. 게다가 (예3)은 생략기호 Platzhaltersymbol 사용에서 문제점을 보인다. (예5)는 두 개의 의미를 구별했지만, 두 번째 대응어정보에서 대응어가 아닌 기술언어적 언어맥락(예: 욕설)을 제시하여 일관된 기술과 거리가 멀다. 또 세 사전은 공통적으로 중립 문체적인 대응어를 제시했는데, 올림말이 하향 이탈적 문체(예: 속어)라면 대응어도 같은 문체층위의 표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표적어에서 항상 같은 문체층위의 어휘단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 차선의 대응어가 문체표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용례의 번역에 있어서 세 사전이 모두 욕설로 된 대응어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표지정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표지 배치이다. 위의 (예5)에서 표지 ‘((속어))’는 올림말에 관계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응어에 관계되는 것인가? 이용자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응어를 찾을 수 있도록 표지의 지시범위에 대해 형식적 규칙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표지의 지시범위는 (1) 올림말 전반, (2) 올림말의 특정 의미, (3) (여러) 대응어이다.

다음에는 사전항목 *Arbeit*에 근거해 대응어 변별정보의 위치에 대해 고찰한다 (참고. 다음 쪽의 보기 1, 2, 3). 같은 올림말이라도 각 사전의 편찬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응어 벌립을 볼 수 있다. 물론 변별정보도 대응어 벌립 만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세 사전의 대응어 정보를 비교할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EDK의 다섯, 여섯 번째 대응어 정보가 나머지 두 사전에 없다는 것이다. 세 종류의 대표적인 독일어 한말 대사전 (WDG, BW, GWD)에서도 이런 대응어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두 대응어를 고려에서 배제하면, EDK는 HDK,

***Arbeit** [árbit] (mhd., „Mühsal, Not“) f.
-en. ① (육체적·정신적) 노동; 작업; 연구; an [od. bei] der ~ sein, 일하고 있는 중이다; an die ~ gehen, sich an die ~ machen, 작업(일)을 시작하다; auf ~ gehen, 남들같이 하러 가다; in ~ sein. a) (사람·기계 따위가) 일하고 있다. b) (물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etw. in ~ haben, 무엇을 제작중이다; in ~ nehmen, a) (사람을) 고용하다. b) (장공의) 제작을 떠맡다; die ~ einstellen[od. niederlegen], 동명 파입하다. ② 노고, 수고, 애쓰기; nicht die halbe ~ haben, 그(것)의 반 정도의 힘도 들이지 않다. ③ (노동의 대량·결과인, 과업; 노력(勞作), 제작품, 제작, 연구의 결과; ~ bekommen, 일차리를 얻다; keine ~ haben, ohne ~ sein, 실업[실직]중이다. ④ 습서, 만듬새. ⑤ (여수 등의) 말뚝. ⑥ [稿] 노동기(중편).

보기1: 사전 항목 Arbeit (EDK)

Arbeit [arbit], die; -en 1. a) (말은) 일, 작업, 연구; an [bei] der A. sein 작업 중이다; an die A. gehen 작업을 시작하다; die A. einstellen(niederlegen) 파입하다; diese A. geht mir leicht von der Hand 이 일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die A. läuft uns nicht davon (중) 우리는 그 일을 서두름 필요가 없네; jmdm. eine A. abnehmen 누구에게서 일을 덜어 주다; ganze (gründliche) A. leisten (tun / (복용어) machen) 일을 철저히 끝내다(중용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 b) (Pl. 없음) (육체적·정신적) 노동, 일, 활동; mit der A. aufhören 노동을 중단하다; [작업] die A. der Maschine geht fast lautlos von sich 기계는 자의 소리를 내지 않고 일한다; [작업] der [die] hat die A. nicht erfunden 그 [그녀]는 예제 일하러 하지 않는다; [작업] nach getaner A. ist gut ruh(e)n 일을 끝낸 후의 휴식은 상쾌하다; etw. in A. geben 무엇을 맡겨 주다; etw. in A. haben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다; in A. sein (사람이 일하는 중이다, [물건이] 제작 중에 있다. c) (Pl. 없음) 노고(수고), 애쓰기, 귀찮은 일. d) (Pl. 없음) 직업, 직책 (일) 업무, 생업; A. suchen 일차리를 찾다; ohne A. sein 실직하다; von der A. kommen (zur A. gehen) 퇴근(출근)하다; [작업] jede A. ist ihres Lohnes wert 무슨 일하는 대가를 받을 만하다; (bei jmdm.) in A. sein(stehten)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다; von seiner Hände A. leben (아어) 간신히 스스로 생계를 꾸리다. 2. (Pl. 없음) [스포츠] [스포츠] 트레이닝. 3. (Pl. 없음) a) [결과] 조마(사물) 목적에 따라 말을 표현시킨. b) [사실] 사냥개와 (노획물 찾기) 훈련. 4. a) 노력(勞作), (제)작품, 제작품, (연구) 논문; junge Künstler stellten ihre -en aus 젊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作品)들을 전시했다; [작업] das ist bestellte Arbeit 거기에는 의도가 숨어 있다; nur halbe A. machen 무슨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다. b) 시험, (교실에서) 과제; Klaus hat die A. in Mathemaek nicht mitgeschriben 클라우스는 수학 시험을 보지 않았다. c) 습서, 만듬새, 조형(物), 형성(物). 5. [물리] 작용.

보기3: 사전 항목 Arbeit (MDK)

***Arbeit** [arbit] f. -en (英: *work, labor*) 1. (英. 로) (육체적·정신적인) 노동, 근로, 일, 공부, 연구; körperliche ~ 육체 노동/ geistige ~ 정신 노동/ ~ und Kapital 노동과 자본/ gute ~ leisten 좋은 일을 하다. 2. (구예적인) 일, 작업, 직책, 일터; ~ suchen 직장을 찾다/ an der ~ sein 일을 하고 있다/ an die[ene] ~ gehen 일을 시작하다/ sich an die ~ machen 일에 착수하다/ auf ~ gehen 본래이 하러 가다/ bei der ~ sein 작업중이다/ mit der ~ aufhören 일을 중단하다/ ohne ~ sein 임직중에 있다/ von der ~ kommen 일(터)에서 돌아오다/ zur ~ gehen 일하러(일터로) 가다; schön하다/ Machen Sie mir bitte für diese ~ ein Angebot! 이 일을 할마로 해주시겠습니까! 3. (英. 로) 노고; Das kostet mich viel ~ 그 것은 힘이 많이 든다. 4. 숙제; eine ~ schreiben; [schreiben lassen] 숙제를 하다(시키다). 5. a. (계획적인 행위의 결과 결과로서의) 제작품, 저작, 논문; eine wissenschaftliche ~ 학술 논문/ die ~en eines Künstlers ausstellen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다/ eine bahnbrechende ~ 획기적인 작품/ eine ~ vor öffentlichen Augenbrennen 발표하다. b. (제작품의, 물건, 종류, 타입, 형; eine saubere ~ 깨끗이 마무리된 작품/ eine ~ aus Silber 은제품. 6. (기계 등의) 움직인, 직종, 작품. 7. [스포츠](동물의) 훈련, 조련 (價用) (bei jm.) in Arbeit stehen (→ 예제) 고용되어 있다 ganze[gründliche] Arbeit leisten [tun/machen] 철저히 하다(주로 나쁜 일에 관해서이며, machen은 구어) nur halbe Arbeit machen 호지부지하다 et. in Arbeit geben ...을 제작시키다 et. in Arbeit haben ...을 제작중이다 ja, in Arbeit nehmen ...를 고용하다 von seiner Hände Arbeit leben (價)(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einer (geregelten) Arbeit nachgehen (價)직업된 일을 하다 die Arbeit nicht gerade erfunden haben (反·口)게르다 (價合) Akkord-장부 공사; 성과급의 일 Bastel-공작품 Büro-사무실 근무 Diplom-대학 졸업 논문 Doktor-박사학위 논문 Einlege-상감 새금(象嵌細工) Fabrik-공장 노동 Feld-농업; 경작 Ganztags-하루종일의 작업 Häkel-코바늘 뜨개질 Hand-순임 Haus-가사; 숙제 Kopf-두뇌 노동 Land-농업 Nacht-야간 노동(영역) Neben-부업; 아르바이트 Prüfungs-시험 과제(답안) Qualitäts-숙련 노동 Schicht-교대제의 노동(작업) Schwer-중노동 Stümper-서투른 작업 Tages-하루의 일 Vor-예비 작업 Zusammen-공동 작업; 협력 (價) Arbeit는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입적(專)의 활동으로서의 「노동」의 의미이고, Beschäftigung는 당사자가 받은 직업 교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임금 노동」이며, 구어의 Job는 일시적으로 바는 일로 거의 「아르바이트」에 상당함. 「작업」을 의미하는 Arbeit는 「예술적·학문적·수공업적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의 성과물 가리킴. Werk는 창조적 활동의 성과를 가리키며, Opus는 Werk의 같은 뜻이지만 쓰여진 작품, 특히 음악작품에 쓰임

보기2: 사전 항목 Arbeit (HDK)

MDK에 비해 두 개의 대응어가 부족하다. 즉, HDK의 6, 7번 대응어 정보, MDK의 5, 2, 3번 대응어 정보.

방주정보는 세 사전에서 모두 나타난다. 방주는 형태적으로 동의어나 구의 꼴로 제시된다. 여기서 분석하려는 사전항목에는 동의어 방주는 없다. EDK, HDK, MDK의 첫 번째 방주는 대응어정보 ‘노동’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응어 앞에 위치한다. 또한 대응어와 통사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이 보정적 방주가 생략되더라도 대응어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MDK의 두 번째 방주는 대응어정보에 대한 해설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설적 방주는 대응어 뒤에 오며, 대응어와 통사적 결합가능성은 없다.

사용분야에 관한 표지도 세 사전에서 보인다. MDK에서 3.a)의 표지 [경마]는 그것이 뜻하는 바가 ‘경주’라는 의미에 국한되므로, ‘경주, 마술’의 의미를 가진 [승마]가 사용분야 표지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참고. 연세 한국어사전). 아울러 자연스럽게 못한 대응어 선택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EDK의 ‘② 애쓰기’, MDK의 ‘1.c) 애쓰기’는 명사 올림말에 대한 대응어로 부적절하다. 문법정보(단/복수 사용, 문형 등)나 사용 용법에 대한 정보는 기술언어적 설명을 통해 제시된다. HDK와 MDK에서 단/복수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기호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여러 대응어가 중첩적으로 제공될 때, 대응어 간의 경계설정이 중요하다. HDK의 첫 번째 대응어 정보에서 ‘일’과 ‘공부’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경계구분이 있어야 옳다. 위와 같은 형태로는 ‘(육체적) 공부, 연구’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말 쓰임새가 자연스럽게 못하다. EDK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서, 앞에 오는 괄호 안의 내용이 뒤에 오는 대응어 ‘노동’과 결합할 수 있고 일단 거기서 끝남을 보여준다: ‘(육체적·정신적) 노동’. 용례정보에서도 방주가 쓰이지만 보기로 든 사전항목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독일어 ‘Arbeit’에서 차용된 외래어 ‘아르바이트’는 의미축소가 되어, 주로 ‘부업 Nebenjob’을 의미하며, 또 대학생 언어로는 ‘과외 Nachhilfe’를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위에 다룬 것과 달리 한-독 사전에서는 ‘아르바이트’가 ‘Nebenjob’, ‘Nachhilfe’로 설명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언어간 불일치는 언어쌍에 매우 의존적이며 양방향 두말사전에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⁸⁾

8) 이런 이유로 현대 독일사전학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검토되고 있는 다중기능사전

4.3. 용례정보

용례정보의 선택은 대응어 선택과 마찬가지로 두말사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두말사전에서 용례정보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먼저 용례정보는 대응어 정보를 보충한다. 대응어나 변별소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정보가 용례정보를 통해 내포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둘째로 올림말의 통사·의미적 및 화용적 문맥제약성을 보여준다. 셋째로 용례정보 자체가 해당 국가, 국민의 문화적, 정신적 및 지역적 정보 등을 재현해 준다. 용례정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도 사전의 유형과 기능, 이용자집단의 수준 및 요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두말사전은 긴 사전항목을 제시할 때 종종 일목요연하지 못한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덜란드의 출판사 Van Dale은 사전항목의 표준화에 힘썼다. Van Dale체제는 항목구조의 엄격한 3등분으로 특징지워진다. (1) 올림말 정보 (예. 빈도, 성, 타동성/자동성/제귀성). (2) 대응어 정보 (0.1, 0.2, 0.3 등으로 표시). (3) 통합소 정보 (명사에서 감탄사까지 1.0, 2.0, 3.0 등으로 표시). Van Dale사전은 두말사전의 미시구조적 배열원칙으로 세 가지를 설정하고 이의 조합을 실현했다. 세 원칙은 (1) 의미적 원칙, (2) 범주적 원칙, (3) 알파벳 원칙이다. 두 언어가 가진 다의어 현상 때문에 의미적 원칙에 의한 배열은 다른 원칙들에 의한 배열보다 흔히 미시구조적 정보 포착에 약점을 갖는다. 다른 두 원칙에 의한 배열은 포착구조가 일목요연하다. 예컨대 Van Dale 사전에서는 아홉 개의 품사에 일련번호를 매겨 이 번호순에 따라 배열을 한다. 1. 명사, 2. 형용사, 3. 동사, 4. 대명사, 5. 부사, 6. 전치사, 7. 수사/관사, 8. 접속사, 9. 감탄사. 품사에 따른 이 번호는 다시금 대응어 의미군 번호와 결합한다. 예를 들어 정보 2.4는 다음을 뜻한다. 의미4의 올림말이 형용사(2.0)와 연결된다(Stekenburg et al. 1982, 234).

그 밖에 알파벳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한 하위범주에 여러 개의 용례정보가 있을 때 유용하다. 전치사와 결합된 명사 올림말의 용례들이 전치사의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 특히 긴 항목의 경우, 이용자들이 전체 항목을 다 볼 필요가 없게, 하

multifunktionales Wörterbuch 논의는 독일어와 한국어와 같이 그 발생적 갈래와 구조가 동떨어진 언어쌍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위범주 (여기서는 전치사)는 글꼴디자인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잘 띄게 해야 한다. 앞의 (보기2) 즉, HDK의 항목을 예로 들면, 대응어 정보 2번 아래의 용례들을 글꼴디자인적 방법으로 그 포착구조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an der ~ sein/ an die[eine] ~ gehen/ sich an die ~ machen/ auf ~ gehen/ bei der ~ sein/ mit der ~ aufhören/ ohne ~ sein/ von der ~ kommen/ zur ~ gehen”.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원칙들은 Van Dale사전에서 개별적이 아니라 조합적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미시구조 조직을 범주-의미-알파벳 조직이라고 한다. Hausmann(1988, 143)은 Van Dale 사전체계의 일목요연한 미시정보 제시방법을 독창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동시에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비판한다. 첫째, 그는 모든 이용자들이 범주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한다. 둘째, 그는 문맥 핵심어에 대한 형식적 알고리즘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Van Dale사전의 정보제시방법은 두말사전의 미시구조 제시방법을 모색하는 데 좋은 시사를 줄 것이다.

5. 맺는말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 두말 사전학의 학문적 성과를 각 분야별로 즉, 두말사전의 기본유형, 올림말의 선택과 배열, 두말사전의 미시구조적 구성성분과 그 조직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동안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등한시 되었던 독-한 두말사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주된 보기항목으로 사용한 하나의 명사 올림말 Arbeit는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광범위한 자료를 -품사별, 기능별 등- 토대로 한 후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사전학적 논의는 후일의 사전 개정작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이론과 사전편찬 실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사족을 달자면 사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전을 쓰는 작업에 비해 턱없이 쉬운 일이란 사실이다.

참고문헌

-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서울, 두산동아, 1998 (초판 5쇄 2001).
- EDK = 엡센스 독한사전. 허형근 (편). 서울, 민중서림, 1984 (초판 7쇄 1994).
- HDK = 현대 독한사전. 지명렬·지 정 (편). 서울, 교학사, 1996.
- MDK = 모델 독한사전. 한국독어독문학회 (편). 서울, 삼화출판사, 1995.
- BW = Brockhaus-Wahrig: Deutsches Wörterbuch in sechs Bänden. Hrsg. von G. Wahrig/H. Krämer/H. Zimmermann, Wiesbaden/ Stuttgart. 1980-1984.
- DCW = Deutsch-Chinesisches Wörterbuch. Autorenkollektiv unter der Leitung von Pan Zaiping. Shanghai 1984.
- GWD =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sechs Bänden. Hrsg. und bearb. vom Wissenschaftlichen Rat und den Mitarbeitern der Dudenredaktion unter Leitung von Günther Drosdowski. Mannheim/Wien /Zürich. 1976-1981.
- WDG =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rsg. von Ruth Klappenbach und Wolfgang Steinitz, Berlin. 1961-1982.
- Baunebjerg Hansen, G.(1988): Stand und Aufgaben der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Nachlese zum Kopenhagener Werkstattgespräch 12.-13. Mai 1986. In: Lexicographica. International Annual for Lexicography. 4/1988. Tübingen, 186-202.
- Baunebjerg Hansen, G.(1990): Artikelstruktur im zweisprachigen Wörterbuch. Überlegungen zur Darbietung von Übersetzungsäquivalenten im Wörterbuchartikel. Tübingen (Lexicographica Series Maior 35).
- Duda, W./M. Frenzel/E. Wöller/T. Zimmermann(1996): Zu einer Theorie der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Überlegungen zu einem neuen russisch-deutschen Wörterbuch. In: Linguisitische Studien, Reihe A, Arbeitsberichte 142. Berlin.
- Hausmann, F. J.(1977): Einführung in die Benutzung der neufranzösischen Wörterbücher. Tübingen.
- Hausmann, F. J.(1988): Grundprobleme des zweisprachigen Wörterbuchs. In: Hyldgaard-Jensen/Zettersten, 137-154.
- Hausmann, F. J./R. O. Werner(1991): Spezifische Bauteile und Strukturen

- zweisprachiger Wörterbücher: eine Übersicht. In: Wörterbücher. Bd. 5.3, 2729-2769.
- Hyldgaard-Jensen, K./A. Zettersten [Ed.](1988): Symposium on Lexicography III.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exicography May 14-16, 1986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Tübingen.
- Kromann, H.-P./T. Riiber/P. Rosbach(1984): Grundfragen der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In: Studien zur neuhochdeutschen Lexikographie V. Hrsg. von H. E. Wiegand. Hildesheim·Zürich·New York. 159-238.
- Kromann, H.-P./T. Riiber/P. Rosbach(†)(1991): Principles of Bilingual Lexicography. In: Wörterbücher. Bd. 5.3, 2711-2728.
- Manley, J./J. Jacobsen/V. H. Pedersen(1988): Telling lies efficiently: Terminology and the microstructure in the bilingual dictionary. In: Hyldgaard-Jensen/Zettersten, 281-302.
- Reichmann, O.(1989): Lexikographische Einleitung. In: Frühneuhochdeutsches Wörterbuch. Hrsg. von R. R. Anderson/V. Goebel/O. Reichmann. Bd. 1. Lieferung 1. Berlin/New York, 1-164.
- Van Sterkenburg, P./ W. Martin/ B. Al (1982): A new van Dale project: bilingual dictionaries on one and the same monolingual basis. In: J. Goetschalckx/L. Rolling [Ed.]: Lexicography in the electronic age.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in Luxembourg, 7-9 July, 1981. Amsterdam/New York/Oxford, 221-237.
- Werner, R. O.(1991): Die Markierungen im zweisprachigen Wörterbuch. In: Wörterbücher. Bd. 5.3, 2796-2803.
- Wiegand, H. E.(1989): Aspekte der Makrostruktur im allgemeinen einsprachigen Wörterbuch: alphabetische Anordnungsformen und ihre Probleme. In: Wörterbücher. Bd. 5.1, 371-409.
- Wiegand, H. E.(1989b): Arten von Mikrostrukturen im allgemeinen einsprachigen Wörterbuch. In: Wörterbücher. Bd. 5.1, 462-501.
- Wörterbücher.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Lexikographie. Hrsg. von F. J. Hausmann/O. Reichmann/H. E. Wiegand/ L. Zgusta. Berlin/New York. Bd. 5.1 (1989), Bd. 5.2 (1990), Bd. 5.3 (1991).
- Zgusta, L.(1971): Manual of Lexicography. Den Haag.

Zusammenfassung

Die Organisation von Mikrostrukturen der zweisprachigen Wörterbücher Deutsch/Koreanisch

Kim, Kyong (Uni Heidelberg)

Die vorliegende Arbeit verfolgt zwei Ziele: zum einen sollen die Entwicklungen in der modernen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mit Ausgangssprache Deutsch skizzenhaft vorgestellt und einige Forschungsdefizite benannt werden, zum anderen sollen die Ergebnisse und Methoden der neueren Lexikographie anhand von Beispielartikeln der drei einschlägigen deutsch-koreanischen Großwörterbücher kontrastiert und diskutiert werden.

Zuerst wird eine Typologie der zweisprachigen Wörterbücher erstellt, derzufolge es jeweils 2 aktive und 2 passive Wörterbücher pro Sprachenpaar gibt. Das Aktiv-Passiv-Prinzip gilt als ein grundlegender Ausgangspunkt für die zweisprachige Lexikographie. Eine Erweiterung der Unterscheidungskriterien scheint nicht zweckmäßig und angesichts praktischer Schwierigkeiten auch kaum realisierbar. Plädiert wird für eine stärkere Berücksichtigung der Benutzungssituationen, zu denen z.B. der Grad der Sprachbeherrschung der jeweiligen Benutzergruppe, die möglichen Benutzungsanlässe, der Kenntnisstand bezüglich der Benutzerhinweise sowie die technische Geschicklichkeit bei der Wörterbuchbenutzung etc. zu zählen sind.

In makrostruktureller Hinsicht werden die Selektion und die Anordnung der Lemmata diskutiert. Bei der Lemmmauswahl wäre es wünschenswert, auf der Grundlage eines Lemmavergleiches der verschiedensten Quellenwörterbücher ein datenbasiertes Korpus zu erstellen. Dazu könnten folgende Materialien ausgewertet werden: (1) einsprachige allgemeine (od. spezielle) Wörterbücher (z.B. Deutsch/Koreanisch), (2) zweisprachige allgemeine (od. spezielle) Wörterbücher (z.B. Deutsch-Koreanisch, Deutsch-Englisch) etc. Die bloße Übersetzung lediglich eines einzigen Quellenwörterbuches könnte dagegen zu unerwünschten Einseitigkeiten führen.

Was die Anordnung der Lemmata in zweisprachigen Wörterbüchern betrifft, können dieselben drei makrostrukturellen Typen unterschieden werden, wie in einsprachigen Wörterbüchern: (1) glattalphabetisch, (2) nischenalphabetisch, (3) nestalphabetisch. Unter den zu untersuchenden Wörterbüchern weisen das EDK und das HDK die nischenalphabetische Makrostruktur auf, das MDK ist dagegen nestalphabetisch angeordnet.

Je nachdem, wie die Polysemiestruktur und die Mehr-Wort-Einheit kombinieren, werden die drei Arten der Mikrostruktur unterschieden: (1) die integrierte Mikrostruktur,

(2) die nichtintegrierte Mikrostruktur, (3) die partiell integrierte Mikrostruktur. Während das EDK und das HDK eine integrierte Mikrostruktur besitzen, weist das HDK eine partiell integrierte Mikrostruktur auf. Die Artikelgestaltung durch die nichtintegrierte Mikrostruktur, die häufig in der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angewandt wird und entsprechende Vorteile besitzt, sollte künftig als Gestaltungsmöglichkeit stärker in Betracht gezogen werden.

In Bezug auf die Organisation der Mikrostruktur werden vier Bauteile, das sind Lemma-, Äquivalent-, Diskriminator- und Beispielangaben untersucht. Die Übersetzungsäquivalente werden je nach dem lexikalisch-semanticen Abdeckungsgrad mit dem Lemma in drei Typen eingeteilt: (1) Volläquivalent, (2) Teiläquivalent, (3) Nulläquivalent. In der Mehrheit kommen die Teil- oder Nulläquivalente vor, weil die ausgangssprachlichen Lemmata und die zielsprachlichen Äquivalente in sich Polysemiestruktur aufweisen. Informationsmängel auszugleichen ist die Funktion des Diskriminators, in dem Glosse, Markierungen und metasprachliche Erläuterungen zusammenwirken. Verbesserungswürdig sind die gängigen deutsch-koreanischen Wörterbücher vor allem im Hinblick auf die stilistischen Markierungen: die Inkongruenz des Stils zwischen den beiden verschiedenen Sprachen wird bislang zu wenig berücksichtigt und sogar in ein und demselben Wörterbuch nicht konsequent dargestellt.

Trotz der relativen Geringschätzung von Beispielangaben in der europäischen zweisprachigen passiven Lexikographie sollte diesen in deutsch-koreanischen Wörterbüchern mehr Aufmerksamkeit gewidmet werden. Sie sind dem koreanischen Benutzer eine wichtige Hilfe, indem sie die Äquivalentangaben implizite ergänzen und Informationen über die syntaktisch-semantiche und pragmatische Kontextrestriktion bieten. Darüberhinaus stellen sie selbst interessante kulturelle, geistige und landeskundliche etc. Informationen dar.

Was den Artikelaufbau betrifft, wird das Van Dale-Modell diskutiert, d.h. das kategoriell-semantiche-alphabetische Prinzip, das trotz mancher Kritikpunkte viele interessante Anregungen für die zweisprachige Lexikographie Deutsch-Koreanisch bietet, wo z.B. noch nicht die Präpositionen in der Beispielangabe durch typographische Hervorhebung präsentiert worden sind.

Aus Platzgründen sind hier nur wenige Beispielartikel mit substantivischen Lemmata angeführt und analysiert worden. Um die höhere Generalisierbarkeit zu erreichen, brauchen die Untersuchungs-materialien mindestens einen bestimmten Umfang. Derartige empirische Forschungen können als Impulse dazu beitragen, künftige Wörterbücher im Sinne einer Berücksichtigung neuerer lexikographischer Erkenntnisse verbessern zu helfen.

[검색어] 두말사전학, 거시구조, 미시구조

Zweisprachige Lexikographie, Makrostruktur, Mikrostruktur